



문화인력 갈 곳이 없다

광주 매년 수백명 배출...일자리 부족 30% 이상 역외유출

광주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들이 제 때 관련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 양성인력 중 3분의 1 가량이 광주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 등 외지로 진출해 인력 양성에 따른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기업체와 사전협약에 따라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IT소프트웨어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매년 수백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일부 업체가 애초 약속과는 달리 채용 시기를 늦추면서 전문인력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선 5기 2년 출범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오 모씨는 "지난 1일자로 서울 업체에 취직될 것으로 믿고 모두 10명이 2D 애니메이션 교육을 수료했으나 업체에서 사

무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며 채용을 미뤄 대기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모씨도 "저를 포함해 18명이 3D 컨버팅 교육과정에 참여해 고급기술을 배웠는데 업체에서 준비가 안 돼 무기한 대기중이다"며 "1-2기를 합하면 40명의 전문인력이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지난해에만 문화기업체 5곳과 62곳을 유치 및 육성하고, 30개 과정을 통해 맞춤형 인력 400여 명을 양성했으나 이들 중 일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문태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정확한 현황을 파악, 채용이 취소된다면 하반기에 설립될 한미합작법인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와 관련 취업은 확정됐으나 업체의 사정

으로 인해 채용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문 교육 이수자들의 취업률은 75% 가량으로 애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가 대부분 임금이나 복지 등이 열악한 영세업체로, 지역업체에 취직한 전문인력 중 30% 정도가 서울이나 경기도 등의 업체로 이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에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됐으나 세계 분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혜택을 줘야 문화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콘텐츠 기술, 전문적인 인력, 자본, 콘텐츠나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등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쭉쭉 자라거라 불량 벼씨 파동으로 지연된 올해 전남지역 모내기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5일 화순을 들녘에서 한 노인이 퇴약밭 속에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문화환경 만족도 서구 1위 동구 꼴찌

시민 1000명에 물어 본 '광주살이'

91% "중간층 이하" 82% "진보·중도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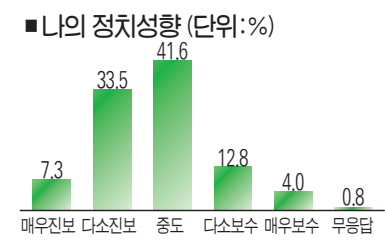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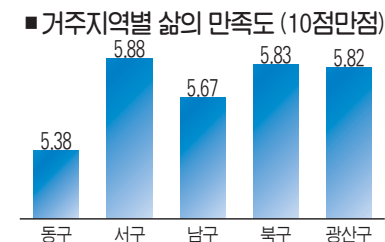
광주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76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 주민의 만족도가 평균 5.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북구(5.83점), 광산구(5.82점), 남구(5.67점), 동구(5.38점) 순이었다. 또한 광주시민의 66.2%는 광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로 '문화 예술도시'를 꼽았다.

광주지역 예비 사회적기업인 한국공공데이터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닷새간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정치성향 등을 면접조사한 '데이터로 본 광주살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전

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성(5.64점)보다 여성(5.89점)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의 만족 수준(5.96점)이 가장 높았으며 50대의 만족 수준(5.56점)이 가장 낮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환경 만족도에 대해 ▲여가활동 공간 ▲문화서비스 ▲물건구매 ▲문화적 편리함 등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서구 주민들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동구는 가장 낮았다.

광주시민은 '문화 예술도시' 외에도 광주를 '교육도시'(14.3%)와 '첨단산업도시'(10.5%)의 이미지로 인식했다. 또한 '광주시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중간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8.1%, 중하층~하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53.4%였다. 시민들은 월평균 소득 기준 162만원 이하는 빈곤층, 827만원 이상은 부유층으로 봤다.
<2면으로 계속>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알림

제 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 시: 2011년 7월 10일(일) 오전 10시
- 장 소: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단체전=1팀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 참가신청: 7월8일(금) 오후 5시까지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 참가비: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상: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시상식: 7월 11일(월) 오전 11시 광주일보 16층

주최: 光日日報社 후원: 광주광역시바둑협회

평창 '운명의 날'

오늘 지정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은 국민의 열원을 담아 유치활동을 벌여온 강원도 평창의 미래가 걸린 '운명의 날'이다. <관련기사 16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6일 남아공 더반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3차 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위원들의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한다.

투표는 오후 3시35분(한국시간 오후 10시35분)부터 시작되고, 오후 5시(한국시간 6일 자정)에 대망의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공표된다.

세 후보도시가 경쟁 중인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은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안시(프랑스)가 한발 뒤처진 가운데 평창과 링헨(독일)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은 명분과 당위성에서 가장 앞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평창은 개최지 투표 직전에 열리는 프레젠테이션에 조양호 유치위원장과 박용성 회장 외에 과거 두 차례나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이끌었던 김진선 특임대사, 피겨여왕 김연아, 미국 입양아 출신인 스키선수 토비 도슨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내세운다.

발표자로 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영어 연설로 평창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한울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의 조화와 균형 상태인 '울려'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한울정의 특징

- 1인 1실, 1:1 케어
- 한방 화장품 한울 정품 사용
- 금수저&은수저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사용 및 5% 적립 가능

아리따움 총장직영점 2층에 있습니다. ◆ 예약문의 : 062)432-3030